즐거운 논술여행

정보화 사회의 문화

정보화 사회의 진전은 문화의 보급에도 영향을 미친다. 인터넷 등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영화, 음악 등을 접할 수 있으며 동시에 문화 소비자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영화, 음악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다.

정보만 앞세우면 문화 설 자리 없어

앨빈 토플러가 말하는 프로슈머(Prosumer)가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 프로슈머란 생산자(producer)와 소비자(consumer)의 합성어인데, 소비자가 생산에까지 참여하고, 생산자가 곧 소비자가 된다는 것이다. 문화적으로 볼 때 프로슈머의 등장은 문화적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고, 소비자의 욕구에 맞는 문화를 개발할 수 있으므로 문화를 발전시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실제로 문화 소비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문화 소비자는 수동적인 입장이었다. 문화 생산자들이 만든 영화, 음악 등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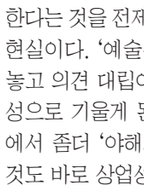
무엇보다도 대중문화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과거에는 어려웠다. 영화를 한 편 관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화관에 가서 관람료를 지불해야만 했다. 말이 대중문화지 실제로 그것을 즐기는 것은 월중행사거나 연중행사기도 하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다. 시간을 내어 영화관에 가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영화를 얼마든지 관람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문화적 평등이 실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들은 생산자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 토론방이나 문화관련 카페에 들어가 보면 유행하고 있는 문화 작품에 관한 수많은 의견이 쏟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화 생산자들도 이런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직접 토론에 참여해 의견을 수렴하는 사람들도 많다. 텔레비전의 경우 '옴부즈맨' 제도를 만들어 시청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있으며, 아예 의견 청취를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송사도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소비자의 욕구에 맞는 문화를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가 반드시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보화 사회에서는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흔히 정보화 사회라고 할 때, 여기에서 말하는 '정보'라는 개념 자체는 인문학적 상상력을 전혀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거대한 산을 보면서 그 웅장함에 감탄하고 그 아름다움에 젖어들기보다는 그 산의 높이는 몇 미터이고 그 산에서 자라는 나무는 몇 종류인지 등을 따지게 되는 것이 정보다. 따라서 정보를 중요시할 때 문화가 설자리가 그만큼 작아질 수 있다. 즉 정보화 사회의 발전이 인간의 문화적 감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더불어 지적할 문제로 문화의 상품화 문제가 있다. TV, 인터넷, 휴대용 모바일 장치 등은 문화적 평등을 실현시켰다. 바꾸어 말하면 문화적 평등이란 보다 많은 사람들이 문화 작품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많이 팔기 위한 경쟁이 나타난다. 우리는 흔히 '예술성과 상업성'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아무리 훌륭한 예술작품이라도 소비돼야 한다는, 즉 팔려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제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술성이냐, 상업성이냐'를 놓고 의견 대립이 있는 경우 대개 상업성으로 기울게 된다.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좀더 '야해지기' 경쟁이 일어나는 것도 바로 상업성이 앞세워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환경에서 문화의 발전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아도 컴퓨터, TV 등 매체를 통해 문화를 접함으로써 문화적 감성을 키우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자연과의 만남조차 TV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기억 속에 오래 남고 감성을 발전시키려면 자연을 직접 체험해야 한다. 매체를 통해 자연을 접할 때 남는 것은 브라질 아마존 강 유역에 열대우림이 있고 아프리카에 사파리가 있고 하는 등의 지식, 즉 정보일 뿐이다. 따라서 문화적 감성을 발전시키는 진정한 체험이 되지 못한다.



황 현 석
광주대성·초암논술 아카데미 대표강사

World Cup D-1 AGAIN 2002

수험생들 재치 만점 '월드컵 생활백서'

'공부랑 놀까, 축구랑 놀까?'

고3 수험생들이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5개월여 남겨두고 월드컵 축구를 봐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고민에 싸여 있다. 지난 2002년의 경우 월드컵 때문에 모의고사 성적이 전년대비 15점까지 떨어졌다는 통계〈표〉는 수험생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다.

'

하지만 난관을 극복하는 수험생들의 자세가 한결 같을 순 없다. 온라인 교육업체 비타에듀(www.vitaedu.com)가 5월 한 달 동안 '월드컵 기간, 수험생으로서의 나의 자세는?'이라는 주제로 릴레이 토크를 벌인 결과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왔다. 수험생들의 재치 만점 '월드컵 생활백서'를 살펴보자.

◇바른생활형

고3이라는 무게는 월드컵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류다. 지금 고생할 것인지 1년 더 고생할 것인지를 잘 생각해보라는 것. 수험생 네티즌 'aso1230'은 "월드컵은 수능 끝나고도 볼 수 있지만 지금의 수험기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며 "저녁에 하이라이트만 본다고 해도 여파가 계속 남게 마련"이라고 했다.

부모의 뒷바라지를 걱정하는 효자 수험생도 있다. 'mmaaxx111'은 "많은 것을 참으며 희생하는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까짓 월드컵 안 보고 공부해야죠. 나의 우선 순위는 수능입니다"라고 적었다.

◇실속형

공부도 하고, 월드컵도 즐기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 부류. 'hanessr'은 "우선 밤에는 체력을 위해 수면을 취하고 나중에 공부하다 지쳐 휴식을 취할 때 혼자서 녹화해둔 걸 보며 즐거워한다. 축구도 보고 잠도 자고 1석2조"라고 했다.

스포츠뉴스의 하이라이트는 수험생에게 꼭 필요하다. 'fresh2833'은 "하이라이트를 꾸준히 보고 흐름을 놓치지 않겠다"고 했는가 하면, 'luvletter'는 "하이라이트만 보고 (학교에) 가도 (월드컵)얘기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적었다.

◇배짱형

이들은 월드컵을 TV로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길거리 응원에도 참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youngwonbm'은 "단체로 보는 축구가 제일 재미있다"며 "새벽이라도 집 앞에 있는 종합운동장에서 꼭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jnr0024'는 "고3도 사람이다"며 "젊은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건강한 신체와 체력이니 축구 경기 시작 직전까지 수능 공부하다 축구 관람하고 2시간 잔 뒤 학교 가자"고 했다. 'aCTion510'은 "새벽에 교복 입고 거리 응원 후 바로 학교로…"라고 적었다.

◇소신형

스포츠 광이라는 'chy7482'는 "축구를 보지 않고 공부를 한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라며 "축구를 본 시간 만큼 잠을 줄이겠다. 절대로 두 가지 다 놓치지 않겠다"고 했다.

위기가 기회다. 공부에 소신을 가진 이들도 있다. 'inthesky11'은 "축구하는 90분 동안 수학문제 9개 더풀어서 원하는 대학을 가겠다"며 "4년 뒤에 월드컵 현장에 직접 가서 보는 길을 선택하겠다"고 적었다.

◇재치입담형

'peatea'는 "응원한 만큼 하늘도 나에게 보답해주겠지"라며 "중학교 기말고사 기간에도 밤늦게까지 축구 응원을 했는데 다른 때보다 성적이 오히려 좋았다"고 밝혔다. 'oll9763'은 "고3 남학생들이 월드컵 기간 동안 축구에만 빠져 있길 기도하는 이기적인 자세 버리기"라고 적었다.

'gkvnaaos'는 "볼 것 다보면서 열공(열심히 공부)하는 법은 후반전만 보기"라고 제안했다. 'dnwhdrk'는 "투혼 팔찌 하나 사서 축구보는 대신 공부하는 도중에 투혼 팔찌를 보며 대표팀 응원하겠다"고 적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바른생활형-나의 우선 순위는 수능

실 속 형-휴식시간 녹화경기 본다

소 신 형-축구본 시간만큼 잠줄여

■2002 월드컵과 (모의)수능 점수 상관성 (단위 : 점)

		수험생 전체 영역별 합산 평균 총점			수험생 상위 50% 영역별 합산 평균 총점		
		인문계열	자연계열	예체능계열	인문계열	자연계열	예체능계열
2002년 9월 모의수능	총 점	206.4	233.1	160.4	263.4	290.7	206.2
	전년대비	-4.5	-6.1	-6.3	-9.2	-15.7	-12.5
2002년 11월 수능	총 점	206.9	234.3		265.5	297.8	
	전년대비	-4	-4.9		-7.1	-8.6	

〈자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입시전문가 제안 '월드컵 관전법'

▲광범위한 학습 계획보다는 집중력이 다소 떨어지는 시간에 6월 모의고사 출제경향에 따른 오답노트 작성·활용할 것.

▲학습 및 생활리듬을 축구 경기가 있는 새벽 보다는 밤 12시에 맞출 것.

▲매년 여름방학 전(6월)부터 시작되기 마련인 슬럼프에 연연해 하지말고 침체기간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

▲6월 모의수능 결과에 따라 목표 대학과 학과를 가능한 빨리 정하고 맞춤식 대입 준비로 학습 효과를 향상시킬 것.

▲새벽 시간 월드컵 중계 시청을 자제하고 학습 능률이 떨어질 때 잠시 휴식 삼아 볼 것.

◇도움말=고려학력평가연구소 유병화 평가이사